

화순군, 아스파라거스 日수출량 증가

생산 기반 확대·품질 향상 등 농가 고소득 기대 비가림 시설하우스 온도 저감·관수 시스템 지원

화순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아스파라거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와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 수출량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5월까지 화순 아스파라거스 1.8t이 5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출된다.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7% 가량 증가한 규모로 화순 아스파라거스의 우수성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화순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 길은 지

난해 다시 열렸다. 처음 수출한 2011년 이후 실적이 없었지만 화순군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협력한 결과, 지난해부터 다시 수출을 재개했다.

군은 2008년부터 춘양면 주요 소득 작물로 아스파라거스를 선정, 재배 농가를 육성해 왔다. 11개 농가 4.9ha로 전남 재배 면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화순 아스파라거스 브랜드 구축,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내년까지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소득 작목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

성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신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기존 비가림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온도 저감 시설, 관수 시스템을 지원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스파라거스 수출 전략 모델 개발 협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2천만원의 들여 굵은 직경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 기호에 맞춰 수출 규격품 생산 종합 생산 기술을 실증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경대학교와 함께 수출 품질 향상을 위한 글로벌 GAP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GAP은 유럽 등 160개 국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인증 제도로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인증받으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양태정 화순아스파라거스 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시설하우스 정밀 환경관리를 통해 고품질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수출 선호 규격은 내수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굵은 아스파라거스(40g 이상/1개)로 수출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 아스파라거스는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고소득 작물로 판로가 넓어지고 있다"며 "국내 출하 성수기(4-5월)의 내수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다각화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담양군, 호우 피해 저수지 준설 완료 3억원 들여 32개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담양군은 22일 "본격 영농철을 맞아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군 관리 저수지 28개소에 대해 준설을 완료하고 용수 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내 토사 유입으로 저수 용량 부족 및 수문 막힘 등을 우려해 최형식 군수는 올해 준설사업비 3억원 반영을 특별 지시했으며, 수북면 공산제(사진) 등 군 관리 저수지 32개소에 대해 응급 준설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퇴적량이 커 응급 준설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추가 군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 퇴적토 15만㎡를 준설 완료함으로써 영농기 물 부족 걱정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군 관리 70개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리 47개소 등 총 117개소 저수지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 저수율 73.7%(7만4천713t)으로 지난해 저수율 대비 73%와 유사한 저수율을 확보하고 있다.

심재경 안전건설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준설 계획을 수립, 지역 영농인이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도올 김용옥, 정유애란 특강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시는 22일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해 정유애란의 진정된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3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특강은 시민들에게 정유애란 역사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올, 순천에서 정유애란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 특강은 정유애란의 진정된 의미와 더불어 조선을 지켜 온 호남민들의 호국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도올 선생은 정유애란을 재침입이 아닌 임진왜란과 별개의 전쟁으로 해석해 전쟁 당시 마지막 격전지였던 순천에서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방송은 5월 15일 오후 8시 50분부터 여수MBC에서 방영되며 방송 이후에는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다. 무료 현장 강연은 선착순 7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참가 순천시 문화예술과(061-749-6676)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순천=남정민기자



여수시 '건강 더하기' 상설교육장 운영
여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 더하기 상설 교육'을 운영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고위험군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동부 도시보건지소에서 상설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 시민은 교육 전 기초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와 1:1 상담을 받고 1시간의 고혈압·당뇨병 교육을 이수하면 눈 합병증 검진 쿠폰을 발급해 안과에서 합병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수시제공>

노동부 여수지청, 질식사고 위험 경보 발령

최근 10년간 195건 발생 168명 사망...봄철 주의 당부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22일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질식사 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사 재해가 발생한 만큼 질식사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식사 재해는 최근 10년간 195건의 사고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경우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인 반면, 질식사 사고는 53.2%에 달한다.

계절 별로 봄철이 61건(3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여름 49건(25.1%), 겨울 47건(24.1%), 가을 38건(19.5%) 순이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고 작업 공간 내부 산소를

소모해 산소 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질식사 재해 취약 사업장에 질식사 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질식사재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까지 '질식사재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페수 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 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 맨홀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 안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영상 여수지청장은 "밀폐 공간 작업 시 작업 절차 등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경우 사망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딘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출입할 경우 산소 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성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호응

장성군이 과수, 채소 등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원예농산물 보관에 필수 시설이다. 특히 수확기 농작물을 시장 수요에 맞춰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 부담이 크다. 통상 저온저장고 설치에는 규모·유형에 따라 600만원~4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올해 도비 포함 사업비 6억800만원을 확보하고 저온저장고 62동 설치 비용을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원예 농산물 재배 농가다. 장성군은 대상에 선정된 농가에 총 설치 비용의 40~50% 가량을 지원한다.

장성군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상품성 증대와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장성=김문태기자

곡성군, 작목별 안전장비 현장시연회

곡성군은 22일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에서 농작업 안정성 향상을 위한 안전장비 전시·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일반 농업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다.

농작업 안전 전문 컨설턴트는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효과가 큰 장비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가는 컨설턴트의 지도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다.

이날 열린 시연회에는 이슬머머머머 공급업체는 전동 운반차, 컨베이어, 농업용 분무기, 농작업 안전 보조구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실시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는 장비 사용 안정성·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일련의 작업 과정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곡성=이호선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5월 가정의 달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내안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S 프레임 | 전신 에어 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윙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내안의 활형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울트라진동 모듈 | 하이퍼 S&S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내안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P로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0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받식 | 지퍼패시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내안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롤 |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기능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백운동 644-33) ☎ 062)653-4141